

“문화재 정밀실측 통해 데이터 기록화해야”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발전 위한 토론회’

“문화재 실측조사 및 기록화 사업 시 정밀실측보다 인문·역사학적 접근에 치중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전남대 천득업 교수(건축학부)는 2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천득업 교수는 주제발표 ‘문화재 원형보존과 기록화사업의 의의’를 통해 “기록화사업의 근본 취지는 건물 소멸 전 기록을 통해 재발견에 대비하거나 후세에까지 알리는 것”이라며 “건축물 문화유산의 경우 기록화사업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할 사항은 정밀실측 후 도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유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관련 기록을 총괄하는 상부기구 신설 △델타미디어 활용을 통한 기록매체의 다양화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적정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경원대학교 IT대학 황보택 교수(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부장)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문

화기술 발전동향 및 표준화 방향’을 발표했다. 황보택은 교수는 일본의 ‘그레이트 붓다(great buddha)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문화재를 디지털로 기록하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교수는 또 “사진·동영상의 해상도 및 화질의 기준 등 기록데이터의 표준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5년부터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도 이전까지 총 123건(국보 24건, 보물 85건, 사적 14건)의 문화재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진행했으며, 2000년도 이후 사업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 2008년까지 문화재 204건의 기록화사업을 마쳤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법국가적인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지자체와의 협력·지원 기반 강화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성과를 제출·공유 의무화 추진 △기록화방법의 정교화 및 표준화 강화 등을 향후 기록화 사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4대강 정비사업 안돼!

오체투지 순례 다시 시작...대표에 수경스님

수경 스님을 비롯한 불교환경연대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 반환경정책 맞서 다시 오체투지의 길을 떠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월 28일 묘향산까지 오체투지 순례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불교환경연대와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들은 2008년 지리산 하악단 노고단에서 계룡산 중앙단 신원사까지 53일간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오체투지 순례를 병행했다.

이에 앞선 2003년에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전북 부안 갯벌부터 서울 광장까지 삼보일배 순례를 병행한 바 있다. 당시 수경 스님은 55일간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등 목숨을 건 순례로, 환경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체투지 순례는 2008년 회향지였던 계룡산 신원사 중앙단에서 시작해 묘향산 상악단까지 74일간 전개된다. 순례단은 하루 4km씩, 총 230km를 3보 1배로 정진하게 된다.

특히 5월 초순에는 서울에 도착해 24일 경 시청광장을 비롯해 서



2008년 9월 4일 지리산 하악단에서 오체투지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오른쪽)과 문규현 신부(왼쪽).

울 일대에서 오체투지 순례를 진행하며, 6월 9일 경에는 인진각 망배단, 6월 15일 경에는 묘향산 상악단에 도착해 천고제를 올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2009년 이번 오체투지에서 더 나아가 대사회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영상 및 인터넷 뉴미디어가 격주 1회로 발송되며, 순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도 모색한다. 지부·지회 개선을 통해 서산 철새도래지 문제 등 지역 환경 현안과 연계한 오체투지 순례활동도 펼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MB운하가 재추진되고, 규제완화의 미명 아래 생태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오체투지 순례를 환경·신행운동으로써 정착시키고, 전국조직을 설립해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회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수경 스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상임대표 직을 고사했지만, 임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佛 정법따라 생활하는 청정승가 만들 것”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3월 6일 창립

환경·인권 등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검소하고 청빈한 승가를 만들기 위한 조계종 단체가 창립된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만초, 이하 대중결사)는 2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6일 오후 4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법회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창립 준비위원장 만초 스님(울산해남사 주지)은 “대중결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청빈한 승가상 정립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대중결사 회원들은 사후 모든 재산을 조계종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해 모든 것을 종단과 사회로 회향하고자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대중결사는 정치색을 띠지 않기 위해 정관에 총무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 교역

직 종사자나 교구부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결사는 앞으로 환경·인권·통일·복지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연구하고, 불교적 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창립준비위원인 금강 스님(해남미항사 주지)은 “대중결사 회원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승가상을 생활화하고, 교계 및 사회현황에 대해 토론회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청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립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결사는 현재 40대 전후반 스님 40여 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의장 등 임원진은 6일 오후 3시 총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 곳곳에 부처님 말씀 전하길”

운문승가대, 日 하나조노대와 학술교류협정



2월 24일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 운문승가대학교와 하나조노대학 학술교류협정식에서 명성 스님(오른쪽)과 아베코산 스님(왼쪽)이 협정을 체결했다.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과 일본 인제종 종립 하나조노대학(학장 아베코산)은 2월 24일 청도 운문사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행사에서 아베코산 스님은 “운문승가대학교와 하나조노대학이 함께 세계 곳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교류 협정이 한일 불교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하나조노 대학은 교토(京都)에 위치한 일본 인제종을 대표하는 종합 대학이다. 이날 하나조노대학 대표단은 해인승가대학교과도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한편 운문사는 2008년 9월, 중국 칭화대학교과도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무료시술로 불법 전하는 공플란트치과



공플란트 치과는 2월 24일 독거노인 강중훈 어르신 무료 틀니시술을 시작으로 매달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 시술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박재원 기자

서울 조계사 앞에 위치한 공플란트치과(원장 최우환)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 시술로 희망을 전달하고 있어 화제다.

공플란트치과는 2월 24일 조계사가 선정한 무의탁 독거노인인 강중훈(65세, 여) 어르신에게 첫 무료 틀니시술을 진행했다.

불자인 최우환 원장은 20여 년의

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법에 귀의하며 살아왔다. 그는 “부처님 제자로 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최근 조계사(주지 세민)와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bm과 협력 조인식을 맺었다.

한편, 공플란트치과는 앞으로 본지 독자들이 진료 시 우대할 계획이다. (02)722-2870 이상연 기자

불교문화재 대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11건 보물 지정

불교문화재가 새롭게 발견·재평가 돼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월 23일 총 11건의 불교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606호) 등 조각 2건과 성주 선석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608호) 등 불화 6건, 대불정여래미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보

물 제1603호) 등 전적 2건,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거(보물 제1604호) 등이다.

이 가운데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은 무염(無染)유파 도우 스님이 처음으로 수화원(首畫員)이 돼 조성한 작품으로, 17세기 불교조각사 및 조각유파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포항 보경사 괘불탱(보물 제1609호)도

17~18세기 대표적인 괘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2월 16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동원 스님(양산 통도사 사명암)과 홍창원 이사장(단정연구원)을 단정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보유자로 인정했다. 동원 스님과 홍창원 이사장은 前 단정장 보유자였던 해가 스님과 해만 스님의 기능을 전수받아 공필·사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취 임



제7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

대한불교관음종

제7세 종정취임 법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불기2553(2009)년 3월 6일 (금) 오후 2시
▷ 장소 :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은 본종 종통을 계승하는 제7세 종정 취임 법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천 죽산 대종사의 종정 취임법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 봉행위원회

- 고문: 인봉, 성각, 정암, 화암, 혜학, 송월
- 봉행 위원장: 총무원장 총 파
- 부 위원장: 법륜, 경철, 중명, 백재, 경담, 혜동, 월담
- 집행 위원장: 법 명
- 집행 위원: 대홍, 대광, 성해, 경원, 종일, 학림, 지선, 효천, 도각, 범경, 도원, 도중, 도현, 도법, 도일, 지성, 진각, 혜담, 호명, 여여, 법능, 도문, 경관, 지현, 경해, 녹봉, 경실, 경수, 무학, 운산, 혜정, 최윤섭, 김중남, 유경숙



대한불교관음종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178-3
연락처 : 02) 763-0054